

전남도 '농번기 일손 찾기' 총력전

가을 수확철 42만여명 필요... 중개센터 등 전방위 대응 농작업반 3500명으로 확대... 농촌 일자리 알선·중개도

전남도가 가을철 영농기에 42만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력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인력 수급난에 임금 상승까지 겹치면서 벼 수확, 양파·마늘·배추 모종 식재, 배·고구마 수확 등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농촌인력수급 지원 계획'을 수립해 인력 수급을 점검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35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영농작업반을 풀가동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배양파·마늘·배·고구마·배추 등의 전남 재배 면적은 총 2만1895ha로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약 4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달부터 '가을철 농번기 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군·농협 간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농작업 진행과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상승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군 인력

운영을 조정하고 있다. 농촌 인력공급의 중심축에 있는 35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기능도 강화한다. 주요 농작업반을 3500명으로 늘려 인력중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촌일자리 알선·중개하며, 시·군 간 농작업반을 교류 투입해 중개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가을철 농번기에는 농협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광주·전남농협동인회가 400여명의 작업반을 구성해 무안지역 농가에 인력지원을 나선다. 농작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으로 농가의 호응이 있어 지역별 농협동인회로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중개수수료 무료, 작업반 수송, 간식비·상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인건비 상승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5개월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도 18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960여 명을 고용한다. 5개월간 12만명의 고용효과를 얻어 농촌인력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대폭 개선된데다 시·군의 적극적인 고용지원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무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건의했던 '외국인근로자 인력선발제도 도입,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운영'의 경우,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법무부 등 정부가 개선 방안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앞으로 시·군의 업무부담 경감과 농가의 외국인 고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번기 적기 인력지원과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농협·시·군과 함께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도 건의로 외국인계절근로제 등 관련제도가 개선돼 농촌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교통사고 줄이기' 5년간 3천억 투입

전남도, 안전문화 정착·인프라 확충 등 5개년 계획 발표

26일 전남도는 교통문화 정착, 최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5개년(2023-2027년)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전남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387명에서 2021년 255명으로 민선 7기 4년간 34%가 감소했으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5년간 50%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2023년 최초 100명대 진입을 시작으로 2027년에 128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휴대폰 사용, 영상 시청, 무단횡단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령 사망자 증가와 열악한 도로 여건,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전국 대비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문화 정착 ▲고령자와 보행자 안전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법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 택시, 화물차, 배달이륜차 등 영업용 차량 안전교육 및 민·관·경 협업을 통한 교통 캠페인과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민이 편리하게 교통 민원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토록 교통불편 신고 전용창구도 운영한다.

고령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2배 이상 확대 지정하고,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지원, 고령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할인업체 확대,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교통안전 시설물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진행했던 무인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보행로 조성사업 등은 필요 구간에 지속 확충하면서, 교차로 조명타워와 인공지능(AI)이 결합된 보행신호 연장시스템, 사고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양행 감찰차 등 최첨단 교통시설물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지원

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지하층 주거 42세대 전수조사

광주시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주소를 둔 주거취약계층 42세대에 대해 전수조사와, 이주 희망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협조로 광주지역 주거급여 수급세대 5만8000여 세대 중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가구 42세대를 파악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오는 10월말까지 세대별 방문과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서류작성과 보조금 지원 등 입주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주 희망세대 발굴을 위해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사전 홍보하고 현장방문, 주거복지 상담,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1대 1 지원서비스에도 나선다.

비주거용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고시원, 여관, 여인숙,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활용해 총 109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부터 내비게이션으로 교통신호 확인

광주시, 3개 광역시·민간기업 등 교통인프라 구축·서비스 협약

내년부터 광주 운전자도 내비게이션으로 교차로 등의 교통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인천·대구·울산 등 3개 광역시, 아이나비시스템즈·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3개 민간기업, 도로교통공단과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행 경로에 있는 교차로·횡단보도의 신호 잔여 시간 등 정보를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한다.

대구는 이미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광주에

서는 내년부터 운영된다.

광주시는 서비스를 통해 과속, 꼬리물기 등 위험 운전을 예방하고 앞으로 자율주행차 주행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정보들의 활용으로 교통안전과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통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19회 총장축제와 1회 버스킹월드컵에 대한 킬러콘텐츠, 라인업 발표회가 26일 오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K-pop 댄스팀, 밴드들이 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총상금 2억' 광주 버스킹 월드컵 라인업 공개

광주시·동구 제작발표회... 다음달 8~17일 총장축제 연계 행사

총상금 2억원이 걸린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 참가할 뮤지션들이 공개됐다.

광주시와 동구는 26일 시청에서 '제1회 버스킹 월드컵 인(in) 광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다음 달 열리는 '제19회 추억의 광주 총장 월드컵 페스티벌(총장축제)' 연계행사인 버스킹 월드컵 홍보를 위한 발표회였다.

인기 밴드 '전니버'가 부른 광주 흥보 노래 '드랍 더 빛고을'이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축제 홍보영상 상영과 본선 라인업 발표 등이 이어졌다.

본 경연은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5·18 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총장축제 세계화를 위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총상금 1억 9400만원이 걸린 경연대회다.

온라인 예선에 47개국 539팀이 참여했으며 2차 예선을 거쳐 25개국 120개팀 327명이 선발됐다. 팝클래식 커버 곡을 통해 인기를 끈 영국의 살렛 캠프, 스페인의 거리 악사 보르라, 태국 뮤지션 차하모 등 두툼한 팬층을 거느린 버스커가 대거 참가한다.

본 경연은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5·18 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